

인도 : 이영제 목사

묵	도	다	같	이										
기	원	인	도	자										
개	회	송	40장	다	같	이							
교	독	문	35번	다	같	이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다	같	이										
기	도	이	창	결	집	사								
성	경	봉	독	요10:1-10	다	같	이						
특	송													
설	교	예수	님	은	누	구	신	가?	이	영	제	목	사
			(15. 나(양)의 문이신 예수님)												
찬	송	다	같	이										
헌	금	다	같	이										
봉	헌	기	도	인	도	자								
광	고	인	도	자										
송	영	다	같	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와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축	도	인	도	자										

지난 설교제목 : 길, 주, 생명, 진리, 부활, 생명의 떡, 흠과 신로, 왕, 돌는 해, 신랑, 산돌, 반석, 영, 감독

주앙교회 5대 실천강령

- ◇ 24시간 쉬지 않는 릴레이 기도로 성도 자신이 성령 받고 교우와 선교사를 위해 중보기도 한다.
- ◇ 본 교우는 모두 주 예수그리스도를 바라고 예배하여,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예수의 제자가 된다.
- ◇ 모든 교회재정(십일조, 감사, 선교헌금 등)의 지출은 선교비를 최우선적으로 배정한다.
- ◇ 선교에 주력하는 교회로 선교의 기틀을 마련하여 오는 세대에 복음과 선교정신을 물려준다.
- ◇ 교회 내 모든 기관은 선교 체제로 조직 운영하며 자발적인 봉사와 헌신으로 운영한다.

주앙교회 24시간 기도

■ 기도 참여자 ■

매일 1시간 : 오전 6시(차영숙) / 오후 1시(이영제) 6시(김효선) 유동(이창걸)

■ 기도 제목 ■

○ 주앙교회를 위한 기도제목

24시간 릴레이 기도팀이 하루속히 완성되도록 교회의 파송선교사(김형주, 정00)님을 위해서 중국의 00교회와 리00전도사님을 위해서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피아노 반주자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앙교회 가족 모두가 주님의 축복으로 평안할 수 있도록

○ 이영제 목사님을 위한 기도제목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가 넘치도록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위해서 인도차이나선교대회(11월 24-27일 캄보디아 씨리암)에 특강

○ KCM을 위한 기도제목

인터넷을 전도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KCM 파송 및 협력선교사님을 위해서 멀티미디어팀이 잘 운영되도록 세계선교정보연구원 모임이 잘 활성화 되도록

○ 해외선교를 위한 기도제목

세계의 한국선교사님들의 영, 육 간의 건강을 위하여 사단의 방해가 물러가며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아직까지 복음을 한번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을 위하여 해외 선교를 위해 수고하는 국내의 선교단체들을 위하여

교회 소식

♥ 주앙교회에 처음오신 분

오정은, 고민정 자매, 정필기 전도사, 현경호 관장님 (지속적으로 출석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피아노 반주자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 24시간 릴레이 기도팀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2부 예배 후에 회의가 있습니다.

이영제 목사가 직접 연구한 히브리서 주석자료를 기초로 강해설교 합니다.

히 10:26-31 사함 받을 수 없는 죄

히6:4-8의 평행구절로 본 절에서 31절까지 배교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주어진다.

26절 “ 진리를 아는 지식” 이란 23절의 자신의 고백에 의해서 굳건히 잡을 것을 권면 했는데 이와는 반대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 짐짓” (헤쿠시오스) “ 자진해서, 고의로, 즐거서” 로 알고도 스스로 죄를 짓고있는 것이며 실수나 모르고 짓는 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첫 번째 제사는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구약의 율법으로 주어졌고 이제 예수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세우시고 이것은 단번에 그린 영원한 제사였다. 즉 이제 다시는 또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속죄를 이루셨는데 이분을 떠나는 것은 이제 다른 사함의 길이 없는 것이다.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 무서운” (프호베로아) “ 대단한, 두려운, 소름끼치는” 것으로 이 말보다 더 강력한 언어는 없는 것 같다. 이 단어는 히브리에서만 세 번 나오는데 31절 ‘ 무서울진저’, 히12:21 ‘ 심히 두려고 떨린다’ 로 사용했다. “ 소멸할 맹렬한 불” 은 심판하시는 지옥의 유향 ‘ 불’ (마5:22, 마13:42, 50, 마18:9, 계19:20, 계20:14, 15)을 말한 것이다.

28절 신17:2-7에서 인용한 것으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대한 것이었다.

29절 옛 언약을 어기고 받은 형벌보다 더 엄중한 형벌임을 말한다. 그 축복이 큰 것처럼 그 벌 역시 큰 것이다. 배교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① 하나님 아들을 밟고

“ 밟고” (카타파테사스)는 “ 경멸하다, 내리 밟다” 로 예수그리스도에게 모욕적인 행위를 한 것을 뜻하는 것이다.

②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어기고

“ 언약의 피” 는 출24:8 언약을 세울 때 필요했다. 새 언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한다(마26:28, 막14:24, 눅22:20, 고전11:25).

“ 부정한 것” (코이논) “ 거룩하지 않은, 불경스런” 것으로 여기는 즉 예수그리스도의 신성하고 거룩한 보혈을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다.

③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은혜로 주신 선물 성령을 “ 욕되게 하는 자” (에뉘브리사스) “ 모욕을 주다” 로 막3:29의 “ 성령을 모욕하는 죄” 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다.

30절 신32:35-36의 인용으로 배교자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갚으시는 것을 말한다. 즉 심판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31절 삼하24:14의 인용으로 다윗은 사람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했다. 본 절에서는 다윗이 말한 의미와 전혀 반대적인 것으로 사용되었다.



이영제 목사
주앙교회 담임
한국기독교회 대표

주전자 속의 개구리

조지 바나(George Barna)는 현실에 안주하여 쇠퇴한 유럽교회를 가리켜 '주전자 속의 개구리(Frog in the Kettle)'라고 지적하였다. 곧 주전자 안의 미지근한 물 속에 개구리를 집어넣고 서서히 물을 데우면 개구리가 기분 좋게 죽어간다고 한다. 바나는 바로 이 같은 이미지야말로 현대 서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했다. 즉, 현상 유지(Status-quo)의식 안에 안거하여 편리와 기득권을 즐기는 동안에 우리는 실상 죽어가고 있다는 경고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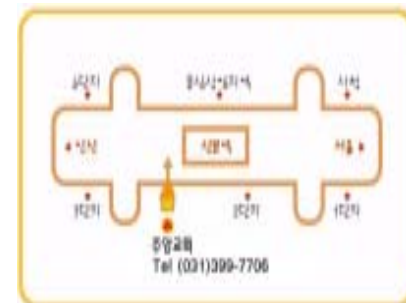
주앙교회 파송, 협력하는 선교사

남아프리카공화국 김형주 선교사 / 필리핀 정형구 선교사
베트남 정00 선생 / 중국 리00 전도사 / 인도 초띠옥이 자매
파키스탄 정00 선교사 / 미국 김능수 전도사

• 예배시간 안내 •

주일 예배	오전 11시
주일 오후(성경 강해)	오후 2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수요 예배	오후 7:30분
금요 심야기도회	오후 9시

• 주앙교회를 찾아오시는 길 •





제목 : 예수님은 누구 신가?

(14. 나의 감독이신 예수님) / 본문 : 뵤전2:18-25

감독이신 예수님께서는 나를 찾으십니다.

창세기 18장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잘 아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서 의인 오십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창18:26)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하시지 않겠다는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인이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죽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과 협상을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10명씩 줄여나가며 하나님께 간구 합니다. 일단 하나님이 50명의 의인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한꺼번에 적은 수의 의인을 말할 수 없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조금씩 줄여나갑니다. 그러나 그 성에는 10인이 없었습니다. 결국 롯의 일행만 빠져나오고 그 성은 멸했습니다. 지금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나를 존중하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감독이 선수들을 다루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끔 운동경기 감독들은 지나치게 선수들을 혹독하게, 그리고 개인적인 배려 없이, 경기만 생각한 나머지 개인의 인격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독자 예수그리스도께서는 개인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 될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정상적인 학교에 들어갈 수 없는 무자격자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의 학교에는 랍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이 누구인가에 따라 문하생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교육사상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아이들을 교육시켜 읽고 쓸 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기본교육은 받았을 것으로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서 어떤 랍비에게 사사를 받았거나 문하생이었다는 기록이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은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일정한 시험을 거친 것도 아니며 오직 예수님이 감독자로서 그들을 선택했습니다. 무명의 사람을 선수로 길러낸 것입니다.

감독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유치원의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없으면 재롱잔치에서 장기자랑을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납니다. 사랑하는 엄마 앞에서 보여주고 싶은데 엄마가 없기 때문입니다.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우리가 4강에 들 수 있었던 것도 대한민국 국민이 간절히 원하고 응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 까지도 세고 계신 분이요(마10:30) 또한 머리털 하나라도 상치 아니하도록 지켜주십니다(눅21:18).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경기에 임한 선수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2003.10. 5) 설교요약

대한예수교장로회

주 앙 교 회

JOOANG PRESBYTERIAN CHURCH

표어

말씀으로 은혜가 가득한 교회
 기도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
 봉사로 사랑을 나누는 교회
 선교로 기쁨이 넘치는 교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사 40:31)

담임목사 이 영 제
 Pastor Lee, Young Jae

435-050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873-3(제일프라자 5층 본당, 사무실 4층)
 교 회 : (031)399-7706 선교회(KCM) : (031)399-7705
 목사관 : (031)398-7702 핸드폰 018-213-7702
 Homepage : <http://kcm.co.kr/church/> Email : webmaster@kcm.co.kr